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 양상*

- 운동주 시를 중심으로

양 왕 용**

차 례

- | | |
|-----------------------------|--------------------------|
| 1. 문제제기와 연구 방법 및 범위 | 3. 운동주 시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과 양상 |
| 2.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 양상과 운동주의 경우 | 1) 聖經 페르디 시의 현실인식 |
| 1)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 | 2) 자기 희생과 속죄양 의식 |
| 2) 운동주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 과정 | 3) '부끄러움'의 정체와 悔改 |
| | 4. 결론 |

1. 문제제기와 연구 방법 및 범위

일제 강점기의 시인들 가운데 작품활동을 한 대표적인 크리스천으로는 김현승(1913-1975), 박두진(1916-1998), 운동주(1917-1945)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작품에 대하여 연구자나 비평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동주의 경우 저항시 여부와 상황의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A22104).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다. 이러한 현상을 통합하여 한국 현대 시문학사에서서의 크리스천 시인들의 위상을 정리하기 위함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작품 경향을 연결시킴에 있어서도 연구자나 비평가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는 연구자가 크리스천이나 아니냐에서 왔고, 같은 크리스천인 경우에도 신앙의 차이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라는 입장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일체 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 태도를 작품 속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이 시기적으로는 해방 이후로 다른 시인들이나 소설가, 극작가들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종래의 기독교 문학 혹은 크리스천 시인의 한국문학사적 위상도 보다 정확하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기독교 문학사도 새롭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작품해석에 의한 기독교 세계관의 정체 파악 즉, 내재적 접근으로만 앞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시인의 정신사적 배경을 살피기 위하여 그의 기독교 신앙의 수용 과정과 양태를 외재적 접근에 의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파악한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종래의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대립되는 견해를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라는 관점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세 시인을 포함한 다른 크리스천 시인들에게도 그 연구 범위가 확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여기에서는 윤동주에 한정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미 김현승의 일체 강점기 시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고,¹⁾ 박두진²⁾의 경우 일체 강점기의 작품만으로 그의 기독교 세계관의 전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윤동주의 경우 기독교 세계관 관점이 아니라도 윤동주의 시는 발표를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니라 내면적 일기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생애를 바탕으로 한 시인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도 있다.²⁾

1) 양왕용, 「김현승의 숭실전문 시절 시의 화자와 태도」, (태야회동원선생화갑기념 『국문학 논총』, 서울, 삼영사, 1983), pp.479~481.

2) 이남호, 「윤동주 시의 의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6), p.110.

2.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 양상과 운동주의 경우

1)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

세계관은 철학과 같은 사고의 체계가 아니라 인식의 틀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세계관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이나 사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구체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세계관은 구체적이라고 하여서 형이하학적인 인식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극히 정신적이며 종교적인 현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궁극적인 신앙의 결단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뿌리를 박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을 어떠한 자세로 수용하였는가를 살핌으로써 그 구체적 양상이 파악된다.³⁾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된 1894년⁴⁾ 이후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어떠한 자세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어떠한가, 개신교 이전에 주류를 이르던 불교와 유교의 수용양상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개신교가 한국인의 종교 수용의 특성에서 어떠한 측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그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크리스천 시인들의 시와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적 가치 혹은 기독교 세계관은 현실을 초월하고 하늘 나라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운동주의 시에서 이러한 지향성이 아닌 것이나 이러한 가치를 비판하는 경우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인식은 비기독교인일수록 심하다. 대체로 세계관은 교육, 예술, 정치 등과 같은 문화와 상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은 오늘날의 문화적 상황이 상처로 얼룩져 있

3) Brian J. Walsh, J.Richard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서울 IVP, 1987), pp.2~47.

4) 미국인 의료선교사 H. N. Allen의 입국연도인 1884년을 그 출발로 보면 개신교의 한국적 수용은 118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다.

기 때문에 이를 치유할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⁵⁾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은 개신교 초기의 한국인의 다양한 기독교 수용 자세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초기 개신교의 수용과정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나 신학자들은 대동소이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⁶⁾

초창기의 한국 지식인들 가운데 개화지향적인 지식인들은 기독교를 개화의 이념적 기반 혹은 방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독교를 인식한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박영효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과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급진개화론자는 근대화의 방편으로는 인식하였으나 신앙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동기에 의하여 입교가 추진되는 경우도 많았다. 서양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입국하기 전 만주와 일본에서 신약성경의 일부가 번역·출판되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사하기 전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뒤에 일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이러한 신자들 가운데 서상륜은 1883년 황해도 소래에서 예수를 믿으며 정착하고 동생 경조와 더불어 전도활동 및 교회 설립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서상륜은 선교사가 입국한 이듬해(1885)에 상경하여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의 신앙은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왕의 처형도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를 피력하였다. 이들은 개화파보다는 영원한 가치, 신 앞에서의 실존문제에 몰두하였다.

이상과 같은 두 관점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의 원류인 셈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로 가까워질수록 유일신사상에 입각한 기독교인들은 미신타파와 우상숭배 거부운동을 펼치는 한편 술, 담배, 아편 등의 금지와 혼례와 장례의식의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근검절약운동에 참여하는 등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표출하게 된다.

5) Brian J. Walsh 외, 앞의 책, p.184.

6) (ㄱ) 이만열, 「한말 기독교 사조의 양면성 시고」,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동태화 과정』,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서울, 지식산업사, 1991), pp. 203-291.

(ㄴ) 박봉배, 「한국기독교의 토착화」, 『한국의 신학사상』(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83), pp.248~258.

(ㄷ)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서울, 전망사, 1982), pp.329~343.

위의 경우와 달리 반봉건, 반외세운동을 전개하는 민중계 기독교인들은 지방 관리의 가렴주구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으로 연결된다. 개화와 지식인들의 경우 협성회 독립협회 등을 조직하여 반침략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에는 아펜셀러 등의 선교사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상의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아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각각 그 양태는 달라도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가 가까워지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일적 극동정책으로 인하여 미 선교사로 구성된 장로교 공의회의 정교분리를 통한 정치적 중립선언이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1904년 이후의 부흥운동은 지나친 개인 구원의 강조로 개혁의지와 저항의지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는 3·1운동의 주도과 신사참배 거부운동, 무실역행운동, 한글 보급, 기독교윤리관, 자유·평등과 공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구령운동 중심의 초월적인 기독교 세계관도 한국기독교의 전통이듯이 민중지향성의 기독교인과 개화와 지식층의 사회, 정치적인 복음 운동도 재래종교 즉 호국불교나 유교를 생활문화나 통치 사상으로 받아들인 현세적인 종교관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다.

특히 3·1운동을 당하여 구령운동의 핵심인물인 길선주 목사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는 등 16인의 크리스천들이 서명한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는 민족의 운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2) 운동주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과정

① 신앙형성의 배경과 유·소년시절

운동주의 신앙형성에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여건은 북간도 명동의 민족적, 문화적 분위기를 들 수 있다.⁷⁾ 명동은 1899년 세워진 한인마을로 1899년 2월 18

7) 그 당시의 북간도에 민족적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7) 박두신,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서울, 아세아 문화사, 2000).

(8) 송우혜, 「지사들의 마을 명동」, 『해란강의 심장 용정』, 『운동주 평전(개정판)』

일 두만강변의 도시인 회령, 종성 등에 거주하던 네 가문 즉, 문병규(문익환 목사의 고조부), 김약연(윤동주의 외삼촌), 남도천 등 종성의 세 가문과 회령의 김하규 가문이 합세하여, 청국인 대지주의 땅을 미리 사 놓은 후 개척한 일종의 계획도시이다. 이 네 사람은 고향에서 모두 서재를 열고 있던 훈장이었다. 이 네 사람 가운데 젊은 두 김씨가 남도천의 아들 남위언과 더불어 세 군데 서재를 설치한다. 이들의 이민 목적은 '① 비싼 조선 땅 팔아 기름진 땅 많이 사서 잘 살아보자. ② 집단으로 들어가 간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자. ③ 기울어 가는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인재를 기르자.'라는 세 가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1906년 애국지사 이상설, 이동영, 이준 등이 서진서숙을 개교하고,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이 교종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자 서진서의 뒤를 이어 1908년 명동서숙이 개교되었다. 명동이 애국적 분위기에 기독교적 분위기가 첨가된 것은 1909년 서울의 기독교 청년학관 출신인 22세의 정재면이 교사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신민회의 권고로 북간도에 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조건으로 부임하였다. 1910년 중학교 과정도 만들었으며,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교사들과 학생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정재면은 얼마간 시일이 흐르자 자기의 교사직을 결코 어른들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하여 명동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 모두 예수를 믿기로 하여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한다. 1909년 5·6월경에 명동에 교회가 서고 명동의 저명한 유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젊은 선생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웠다. 말하자면 개화파들의 기독교 수용과 같은 자세였던 것이다. 이렇게 인재를 기르자는 뜻에서 수용한 기독교에다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청국과 일본의 황포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피난처로서 기독교가 쉽사리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윤동주가 세 살 때인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1919년 3월13일 용정에서 대규모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그 때에 명동학교 브라스밴드가 앞장섰었다. 그러나

(서울 세계사 1998) pp.33~107.

(ㄷ) 한상복, 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p.25~48.

(ㄷ) 정세현, 「윤동주 시대의 어둠」, 『나라사랑』 23집, '윤동주 특집호'(서울, 외솔회, 1976), pp.22~85.

그것은 유혈로 끝나고 교장 김약연이 투옥되고 명동학교가 폐교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였다. 명동학교는 3·1운동이후 재개교와 불탄 학교를 재건하기 위하여 일제와 타협하여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등 변모를 거친다.

다음으로는 운동주의 가계적 측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⁸⁾ 운동주의 집안은 명동 사람들보다 먼저 북간도로 이민하였다. 그의 증조부 윤재옥(1844-1906)은 함북 종성군 동풍면 상장포에서 살았다. 그가 42세 때인 1886년 아내 陳씨와 4남 1녀의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자동에 자리잡았다. 당시 큰아들 하현(운동주의 조부)(1875-1947)는 11세 둘째아들 덕현(가수 윤형주의 조부)(1878-1941)은 8세였다고 한다. 윤재옥이 이민을 단행하였던 시기는 이민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초창기이나 그는 땅을 일구어 부농이 되었다. 그는 1900년이 되자 학자들의 마을 명동으로 이주하였다. 말하자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재산에다 자손들에게는 지식과 명예까지 물려주고자 단행한 이주였다. 1907년 그는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의지와 신명의 인물'임에 비하여 그의 장남이자 운동주의 조부인 윤하현은 '관우 장자의 풍모를 지닌 도량이 큰 인물'로 꼽힌다.⁹⁾ 윤하현이 북간도 자동에서 성장하여 강씨 처녀와 결혼하여 스무살 때 외아들이자 운동주의 아버지인 영석(1895-1962)을 보았고 두 딸 신영과 신진을 두었다. 운동주 가계가 기독교를 수용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9년에 다른 명동 주민들과 함께였다.

윤하현은 장로로 운동주의 외삼촌인 동만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의 김약연과 더불어 명동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학문이 없으면서도 학자들의 마을인 명동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교회의 장로로 선출되었다. 윤씨 집안 분위기는 이민 3세에 해당하는 윤영석 대에 와서 학문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체구는 심약했다. 그는 1909년 명동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운다. 1910년 김약연의 이복 동생 김용(1891-1947)이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가 잃은 후 결혼 8년 째 되던 1917년 12월 30일 운동주가 태어난다. 운동주의 아버지는 1913년 동료 4명과 함께 중국의 수도 북경으로 유학을 떠나지만 대학교육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북경에

8) (ㄱ) 윤일주, 「운동주의 생애」, (『나라사랑』 23집), pp.149~162.

(ㄴ) 송우혜, 위의 책, pp.23~32.

9) 송우혜, 위의 책, p.29.

서 돌아와 명동학교 교원이 되었다. 1923년 일본 수도 동경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관동대지진을 겪기도 하였다. 그는 다분히 문학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윤영석의 큰 누이동생이자 운동주의 큰 고모인 윤신영(1897~?)은 1916년 봄 명동학교 조선어 교사인 송창희와 결혼한다. 그들 부부는 결혼 후 처가에서 살았다. 1917년 9월 28일 운동주보다 3개월 먼저 운동주와 평생동안 운명처럼 연결된 송몽규를 낳게 된다. 말하자면 윤하현 장로는 외손자와 친손자를 석 달 간격으로 보았으며, 이 둘은 1945년 북강 형무소에서 운동주가 2월, 16일 송몽규가 3월7일, 17일 사이에 죽게 되는 끈질긴 인연을 유지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운동주의 가계는 그의 증조부, 조부, 부친 3대를 거쳐 개화지향적이며 현세지향적인 크리스천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선조들의 세계관은 운동주가 1938년 광명중학을 졸업한 후 연희 전문을 진학할 때 여지없이 나타난다.¹⁰⁾ 운동주는 1935년 숭실중학 재학할 때부터 습작한 시인의 길을 걷기 위하여 연전 문과를 고집하고 아버지는 의과를 주장하여 결국 손자가 고등고시를 하기를 기대하는 할아버지의 중재로 문과를 진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선호한 운동주의 조부와 부친은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현세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보기는 힘든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동주는 누이동생 윤혜원에게 “할아버지가 자꾸 저러셔도 <고등고시> 하는 것 아예 과거 다른 거다. <고등고시>는 법과를 해야 하는 거니, 문과 해 갖고는 안 되는 거야!”¹¹⁾라고 밝혀 놓고 서울 유학길을 떠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상의 사건은 운동주의 기독교세계관은 북간도의 민족적이고 교육적인 분위기에 바탕을 둔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직계 가족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단서가 된다.

운동주의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은 그의 미션계 각급 학교를 수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¹²⁾ 운동주는

10) 송우혜, 「평양에서의 7개월」, pp.137~157, 「다시 용정으로 돌아오다」, pp.158~176.

11) 송우혜, 위의 책 p.175.

12) (㉠)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나라사랑』 23집, pp.108~114.

1925년 만 8세의 나이로 명동 소학교에 입학했다. 명동 소학교는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의 곡조(영국 국가의 곡조이기도 함)로 교가를 불렀으나, 3·1운동 이후 일제와 타협하여 일본어를 배웠다. 일본어 교사는 민족의식이 있는 한국인들이었다. 물론 운동주가 다니던 시절에는 일본어에다 중국어가 더하여져 결국 운동주는 조선어를 포함한 3개 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1931년 명동 소학교 5학년을 졸업하였으나, 중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명동에서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대립자 중국인 소학교에 편입하였다. 말하자면 나라 잃은 민족의 비애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맛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 학교의 추억과 비애가 운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의 중국소녀 패, 경, 옥의 이름에 녹아 있다. 1932년 대립자소학교를 졸업한 후 명동에서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용정이라는 소도시의 미선계 학교인 은진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무렵을 전후하여 운동주 일가는 운동주의 교육을 위하여 농토는 소작인에게 맡겨 두고 용정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은진중학교 역시 전문학교 진학의 걸림돌이 되어 1935년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정규학교인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전학을 가게 된다. 숭실중학교로의 전학은 운동주 세계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우선 그가 용정의 친일계통 광명학원 중학부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한 숭실중학교의 폐교로 결국에는 광명학원 중학부를 졸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만 미선계인 평양의 숭실중학교를 택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의 민족의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 당시의 평양행은 간도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경원선을 타고 서울로 와 다시 경의선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번거롭기 짝이 없는 길이었다.

다음으로 숭실중학교 전학의 과정에서 그는 편입시험 실패로 한 학년을 낮추어 입학하는 생애 최초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 특히, 한 학기 앞서 편입한 친구 문익환은 바로 4학년에 입학한 데 비하여 그는 3학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픔이 더욱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일로 집안 어른들은 질책성 편지를 받

(ㄱ) 김정우, 「운동주의 소년 시절」, (위의 책), pp.115~121.

(ㄷ) 유 영, 「연회전문 시절의 운동주」, (위의 책), pp.122~127.

(ㄹ) 박창해, 「운동주를 생각함」, (위의 책), pp.128~131.

(ㄴ) 송우혜, (위의 책), pp.61~286. 명동소학교, 은진중학교, 숭실중학교, 연회전문, 입교대학, 동지사대학.

있고 그는 그로 인해 더욱 괴로워하였다.

그는 난생 처음 부모 품과 가족들과 떠난 객지 생활의 고통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평양은 난생 처음의 조국생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 속에서 시 습작에 힘을 쏟는다. 그는 평양에서 7개월 동안 시 「공상」의 9편, 동시 「조개집질」의 4편, 합계 15편을 썼으며, 「공상」은 1935년 10월에 발간된 교지 『승실활천』에 개재되어 난생 처음 활자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양생활도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한 승실중학교의 폐교로 중단된다. 운동주의 광명학원 중학부로의 편입은 문익환과 같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1936년 4월 새학기로 이들 둘은 승실중학교를 자퇴하고 각각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과 5학년에 편입한다. 그런데 승실중학은 신사 참배 거부 사태를 주도한 승실중학 교장인 선교사 윤산은이 1936년 1월 20일 부로 일제에 의하여 교장직 인가 취소를 당한다. 윤교장은 한국 교회의 당면한 고난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고 3월 21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 후임으로 승실전문 교수였던 정두현이 취임했으나, 4월 신학기에 윤교장 강제 퇴진과 신사 참배 강요에 대한 일제 당국의 부당한 압박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동맹 퇴학을 감행하는 학생들까지 나왔다. 이 때 이 두 사람이 자퇴한 것이다. 운동주의 모교 승실중학은 승실전문과 함께 1937년 10월 29일 폐교원을 제출하고 1938년 3월 19일 일제 당국에 의해 수리됨으로써 40년 역사의 막을 내린다.

운동주의 광명학원 중학부 시절은 4학년과 5학년 2년이다. 광명학원은 1912년 장로교 계통의 영신학교로 출발했으나 경영난으로 일본인 日高丙子郎(대륙낭인)이 1920년대 중반에 인수한 학교였다. 운동주가 편입하였을 때에는 인수자가 일본인 교장과 교사를 데려다가 일본어로 교육하는 학교였다. 문익환의 회고¹³⁾에 의하면 이 학교는 중학부의 우수한 학생들을 일본인 교사가 회유하여 만주군관학교로 보내는 학교였다. 운동주와 그는 승실중학교에서의 편입을 ‘술에서 뛰어 솟불에 내려앉은 격’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신앙의 성숙과 청년시절

1938년 4월 9일 운동주는 대성중학교를 졸업한 송몽규와 함께 연희 전문 문

13)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 『월간 중앙』(1976. 4월호), p.321.

과에 입학한다. 해방직후 운동주의 유고를 경향신문에 발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강처중과 운동주 그리고 송몽규는 연전기숙사 3층 밑 한 방을 쓰면서 그의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깊은 연전생활을 시작했다.¹⁴⁾ 이 때의 결의는 그가 연회전문에 입학하여 쓴 최초의 시 「새로운 길」(1938.5.10)에 나타나 있다. 입학한 1938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길」을 비롯한 8편의 시, 「산울림」을 비롯한 5편의 동시 「달을 쏘다」라는 산문 한 편을 썼다. 그가 입학한 당시의 교장은 부장로교 선교사 Underwood(원한경)였고, 민족의식이 투철한 크리스천 교수 유억겸, 이양하, 현재명, 백낙준 등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최현배 선생은 이 때에 일제에 의하여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도서관 촉탁으로 밀려나 있었다. 비록 최현배 선생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운동주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 때의 민족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것들로 연전 교정에 군데군데 핀 무궁화와 곳곳에 새겨진 태극문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39년 연전 2학년 시절에는 창작보다 작품발표에 주력을 한다. 「自畫像」의 5편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해에 기숙사를 나와 북아현동에 살았는데 그는 친구 라사행과 함께 한 동네 사는 정지용을 방문하였다고 한다.¹⁵⁾ 그는 정지용 시집을 1936년 3월 19일, 송실중학을 떠나기 직전 구입하여 간직하고 있었다. 이 시집은 현재 전하여지고 있는 장서 가운데 가장 처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⁶⁾

1940년 연전 3학년 때에는 그의 자필 시집 원고를 보관하며 1948년 유고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발간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후배 정병욱을 다시 돌아온 기숙사에서 만난다.¹⁷⁾ 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 후배로 운동주의 영향을 받아 연전을 진학한 장덕순을 만난다.¹⁸⁾ 이 둘은 해방 이후 서울대 국문과를 진학하여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게 된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국문학

14) 송우혜, 「짧음의 정거장」, 앞의 책, pp.177~259.

15) 송우혜, (위의 책), pp. 197-200에서 라사행 목사와 인터뷰하고 정지용의 장남 정구관씨를 만나는 등 신빙성 있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지용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6)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서울, 민음사, 1999) 부록 소장도서목록 참조.

17) 정병욱, 「잊지 못할 운동주의 일들」, 『나라사랑』, 23집, pp.132~141.

18) 장덕순, 「운동주와 나」, 『나라사랑』 23집, pp.142~148.

자의 길을 걷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운동주가 행사하였을 것이다.

운동주가 3학년으로 진급한 1940년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해이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 대전은 계속되어 6월에는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고 8월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되고 드디어 9월에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3국 동맹 조약을 조인하게 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일본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자 일본 당국은 격분하고 있었다. 미국은 자국민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 해 가을 재한 미국인에 대한 귀국명령과 함께 마라토사 호를 인천항에 보냈다. 선교사, 학교 교수 등을 비롯한 재한 미국인의 4분의 3이 귀국하였다. 연전 교장 언더우드 일가는 굳은 결의로 남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쓰여진 작품이 1940년 12월의 시 「팔복(八福)」, 「병원」, 「위로」 세 편이다. 그런데 이 세 작품은 1939년 9월 이래 침묵하고 있던 운동주가 1년 3개월만에 쓴 작품이다.

연전 4학년이자 국내에서는 최후가 되는 1941년 그는 하숙과 기숙사를 전전하는 불안한 학창생활을 하게 된다. 혹독한 전시 체제의 식량사정 때문에 기숙사에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한다.

1941년 2월 원한경 교장은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사퇴하고 친일파 명사인 윤치호가 교장으로 앉았다. 1941년 6월부터는 독·소 전쟁이 시작되고 12월 8일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이 시작된다. 이날은 운동주가 「서시」(1941. 11. 20)를 쓴 후 18일 「간」(1941. 11. 29)을 쓴지 9일 만이었다. 운동주는 전시체제 단축으로 3개월 앞당겨 12월 27일 연전을 졸업하게 된다. 그는 졸업기념으로 19편의 시를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내려했으나 이양하 교수의 만류로 내지 못하고 만다. 이 해 그는 시 16편 산문 1편을 쓴다.

이제 그를 죽게 한 일본 제국주의의 본영인 東京 立教大學 유학과정과 京都 同志社大學으로의 편입, 그리고 그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福岡형무소에서의 최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¹⁹⁾

19) 송우혜, 「참회록의 계절」, 위의 책, pp.251~259, 「6침방의 고장, 일본」, pp.260~286, 「체포, 재판 : 복역, 옥사」, pp.257~346.

윤동주는 연희전문을 졸업한 후에는 송몽규와 함께 일본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여 놓고 있었다. 집에서 동의하였고, 윤동주 부친은 이 때에는 연전문과 입학 때와는 달리 적극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현해탄을 건너기 위한 <도항 증명서>가 필요하였다. 문제는 이 도항 증명서에 기록되는 도항자의 성명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창씨개명」이라야 가능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그 때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졸업과 동시에 부산도로 귀향했다가 서울로 돌아와 연전에 가서 창씨개명계를 제출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에 보관된 연전 학적부에 이름이 개명한 이름과 개명계 제출 날짜가 명료하게 남아있다.²⁰⁾

윤동주 : 平沼東柱, 1942년 1월 28일

송몽규 : 宋村夢奎, 1942년 2월 12일

윤동주의 성을 平沼(히라누마)로 개명했던 것은 윤씨들이 그렇게 창씨했기 때문이며, 송몽규는 일본식 창씨 대신 본래 성에다 村자 하나만 덧붙였던 것이다. 平沼東柱의 일본식 발음은 <히라누마 도오유우>, 宋村夢奎는 <소무라 무게이>였다. 그들이 일본에 가서 불리워진 이름이 바로 이것이었다.

윤동주가 창씨개명계를 제출한 1942년 1월 29일은 시 「懺悔錄」(1942. 1. 24)을 쓴 지 닷새 후이다. 그의 「懺悔錄」초고에 의하면 그 때의 고뇌를 원고지 여백에다 낙서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참회록」은 윤동주가 본의 아니게 창씨개명을 하고 적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야 하는 각오와 욕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송몽규와 같이 京都帝大로 가겠다고 장덕순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²¹⁾ 윤동주는 다른 사람의 회고에 의하면 송몽규와 같이 경도제대에 입학시험을 치렀으나 송몽규만 합격하고 그는 실패한 후 동경의 입교대에 합격하였다고 한다.²²⁾ 윤동주가 입학한 입교대는 성공회가 경영하던 미션계 사립대학이었다. 그는 첫 학기에 영문학 연습 동양철학사 두 과목을 수강하였다.

20) 송우혜, 위의 책, p.253.

21) 송우혜, 위의 책, p.257.

22) 송우혜, 위의 책, p.260.

그는 1942년 4월 초 입학하여 7월 중순 여름 방학 전까지 불과 4개월을 입교대학에 다닌다. 이 때에 쓰여진 작품 5편이 현재 전하여지는 일본에서의 작품 전부이고 마지막 작품인 것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동경에서 쓰여진 것이다. 「흰그림자」(4. 14), 「흐르는 거리」(5. 12), 「사랑스런 追憶」(5. 13) 「쉽게 씌어진 詩」(6. 3), 「봄」(창작일 미상) 이 작품들은 연전 친구 강처중에게 보낸 윤동주의 편지 속에 들어 있던 것을 강처중이 보관하였다가 광복이후 경향신문에 공개한 것이다. 이 때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쉽게 씌어진 詩」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2년 7월 입교대학에서 첫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을 맞아 북간도 용정집으로 돌아왔다. 누이동생 윤혜원의 증언에 의하면 보름동안 머물고 <우리말 인쇄물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니 무엇이나 악보까지라도 사서 모으라>고 동생들에게 당부하고, 일본의 東北帝國大學 재학 중이던 친구의 전보를 받고 동북제대로 편입할 수속을 받기 위하여 떠났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떠난 발걸음이 그의 고향과 살아서는 작별한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막상 옮긴 곳은 동북제대가 아니라 그가 동경하던 도시에 있는 일본 조합교회가 경영하는 미션계 동지사대학 영문과였다. 이 소식을 전보로 받은 그의 부친은 굉장히 노여워했다고 한다. 그의 세속적인 모습과 동주를 통해 그가 이룩하지 못한 학력예의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다.

1942년 가을 학기 경도로 옮긴 조합 교회 즉, 장로교 미션계인 동지사대학은 북간도에서 자랄 때부터 장로교 교인이던 그에게 낯익고 편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종사촌 송몽규도 같은 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윤동주는 1942년 10월부터 1943년 7월까지 두 학기를 동지사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영문학사를 위시한 필수과목 5과목과 공통 특수과목 신문학을 이수하였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해 겨울 방학에는 귀향하지 않았다. 이 때에도 역시 많은 시와 일기를 썼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여름방학 귀향을 위해 짐도 부치고 차포도 구한 상태에서 1943년 7월 14일 경도 경찰서 特高형사에게 체포되어 하압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다. 송몽규는 그보다 4일 앞선 7월 10일 먼저 체포된다.

윤동주를 사랑하는 그의 대학 후배이기도 한 일본인 宇治郷 毅(일본 국회도

서관 사서)가 발견한 ‘특고자료(윤일주 교수에 의하여 문학사상 1977년 12월호에 소개됨)에 의하면 그는 독립운동의 죄목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재판소의 판결문도 伊吹郷이라는 일본인에 의하여 몰래 촬영되어 공개되었다. (윤일주 교수에 의하여 『문학사상』 1982년 10월호에 소개되었다)²³⁾ 그 기록에 의하면 죄명이 「조선독립운동」이고 1944년 3월 31일 윤동주는 미결 구류기간 120일이 합산된 2년형을 받았고 송몽규는 합산되지 않은 2년형을 받았다. 윤동주의 출감 예정일은 1945년 11월 30일 송몽규는 1946년 4월 12일이었다. 그들이 생체실험을 이겨냈으면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석방되었을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2년형을 받은 후 그 당시 조선독립운동가를 수감하던 福岡 형무소로 옮겨져 독방생활을 하면서 노역을 하다가 결국은 생체실험의 희생이 되어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 송몽규는 3월 7일 목숨을 거둔다. 윤동주는 간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경찰서에 있을 때 면회한 그의 당숙 윤영춘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윤동주는 그가 쓴 많은 시와 일기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었다고 한다.²⁴⁾

이상과 같이 연희전문, 입교대학, 동지사대학의 수학과정과 그곳에서의 작품 창작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이 세 학교는 모두 기독교 세계관을 실현하는 학교이고 특히 연전의 민족적 분위기에 윤동주는 현세적이고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여 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윤동주의 대표작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3. 윤동주 시의 기독교 세계관 형상화 양상

1) 聖經 패로디 시의 현실인식

윤동주 시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성경을 패로디한 것이다. 그 동안 이러한 작품에 대하여 해석하는 사람들

23) 『문학사상』, (1977. 12), pp.301~314.

24) 윤영춘, 앞의 글, 앞의 책, pp.112~113.

마다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독교나 신앙에 대하여 국외 자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견해들의 이견이 분분하였다. 이러한 이견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시를 창작할 때의 운동주의 신앙의 양태를 감안하여 해석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발에 티분한 것을 다 빼어 버리고
황혼이 호수 위로 걸어오듯이
나도 사뿐사뿐 걸어 보리이까?

내사 이 호수 가로
부르는 이 없이
불리워 온 것은
참말 異蹟이외다.

오늘 따라
戀情, 自惚, 猜忌, 이것들이
자꾸 금메달처럼 만져지는구려

하나, 내 모든 것을 여념 없이
물결에 씻어 보내려니
당신은 湖面으로 나를 불러내소서

-「異蹟」 전문 1938년 6월 19일

이 시는 그의 시 가운데 성경 패로디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패로디한 것이다. 이 이적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적(마태복음 14장 15~21절)을 행한 후 자기는 무리를 재촉하여 보내고 제자들은 배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한 후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를 구하기 위하여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수님이 걸어가자 베드로는 예수께로 걸어가고자 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물에 빠지는 사건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처음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 무서워 놀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 걸하며 진실로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하는 행위로 이적이 끝난다. 따라서 이 이적의 내용은 그렇게 간

단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의심하는 신앙의 양태나 베드로의 감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이나, 다시 의심함으로 인하여 물에 빠지는 등 예수님의 이적 못지 않게 제자들의 신앙의 변화무상함에서도 심도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의 상징성으로 욕망의 정화, 세속적인 자아의 정화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²⁵⁾

그러나 이 시에는 그러한 심각한 국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는 운동주가 연회전문을 입학한 첫 학기에 쓰여졌다. 연전에서 첫 학기는 운동주의 생애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서의 학업의 시작이었고 가장 풍요로운, 가장 자유로웠던 4년 간인 연회전문 문과시절²⁶⁾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한 운동주의 새로운 각오와 감회는 연전에서 첫 작품인 「새로운 길」(1938. 5. 10.)에 형상화되어 있으며, 첫 학기의 여름 방학을 맞아 귀향한 후의 고향에서의 행적을 증언하는 글에서도 나타나 있다.²⁷⁾

이 시의 화자, 즉 운동주 앞에 전개되는 호수는 풍량이 이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다. 다만 버리는 것은 ‘발에 터분한 것’(첫째 연), 즉 ‘연정’, ‘자홀’, ‘시기’(셋째 연)와 같은 세속적인 욕망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유혹도 단지 금메달처럼 만져질 따름이다. 이러한 유혹도 주님이라고 상징되는 청자 당신이 이적으로 불러낸 호숫가에서 여념 없이 씻어 낼 수 있다고 진술한다. 말하자면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데서 소박하고 순진한 믿음을 가진 운동주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운동주의 신앙으로 육화하여 패로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적에 대한 단순한 찬사보다 이적을 통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겠다는 점에서 운동주의 신앙시의 첫 출발의 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시적 의의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세적 기독교 세계관 때문에 다가올 시대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징후도 보이고 있다.

25) M. 엘리야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대구, 형설출판사, 1985), p.216.

26) 송우혜, 위의 책, p.177.

27) 윤일주, 앞의 글, 앞의 책, pp.155~156.

八 福

-마태福音 5장 3~12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永遠히 슬플 것이오.

-1940년 12월 추정

이 작품은 창작 일자가 명기된 작품은 아니다.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²⁸⁾에 의하면 1940년 12월 3일 완고하는 「慰勞」의 초고와 완고 사이에 배열되어 있다.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 편자의 설명이나 사진판을 관찰해 본 결과, 1940년 12월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²⁹⁾ 이 작품의 원고는 원고지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갱지에 쓰여졌으며, 종이의 앞뒷면에 기록되어 있다.³⁰⁾ 운동주 자필 원고를 검토해 보면 이 작품은 완고를 위해 정서하기 보다 일단 작품을 다 쓴 후, 다시 옮겨 쓰거나 개고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부제격인 성경도 ‘마태 五章 三節’이라고 하였다가 그것을 지운 후 ‘마태복음 5장 3~12’로 고쳐져 있고, ‘저희가 永遠히 슬플 것이오’라는 둘째 연 앞에 ‘저희가 슬플 것이오/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라는 두 행은 지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행 가운데 ‘永遠히’도 ‘오래’를 지운 옆에다 첨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원고에는 찾아 볼 수 없는 작품 주위를 손으로 사각형 줄을 그어 감싸고 있다. 이런 여러 모습으로 보아 다른 곳에 옮겨 정서할 필요가 있었던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퇴고 과정을 통하여 창작 당시의 고통과 상황의식을

28)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 (서울, 민음사, 1999), p.178.

29) 권영민 편저, 서거 50주년 기념 운동주 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서울, 문학사상사), p.102.

30) 왕신영 외, 앞의 책, p.8.

집작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상과 같은 문헌적 검토 결과 어찌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으나, 운동주가 작품의 부제로 정확하게 제시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직접적으로 패로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연구자가 언급하였듯이 논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견해가 가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 하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아 앞으로 나온 제자들과 산아래 있는 무리를 향하여 한 설교이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대강령을 제시한'³¹⁾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세칭 '8복'이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³²⁾

-마태복음 5장 3절~12절

이상의 성경 말씀에서 8복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면, 결코 세속적인 행복이 아닌 것이 금방 드러난다.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핍박 등은 세속적으로 볼 때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는

31) 『아가페 큰 글 성경 -신약전서』(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p.7 산상수훈 부분.

32) 앞의 책, pp.5~6.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덕목이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8복은 대단히 역설적인 복이다. 특히 종교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꺾박 받는 태도에도다가 10절로부터 12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데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8복 가운데 운동주가 주목한 복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이다. 이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는’을 순수한 우리말인 ‘슬퍼하는’으로 바꾸어 여덟번 반복함으로써 「八福」이라는 작품의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 고통과 자기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그 슬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두 번째 복에 착안하여 이 작품을 해석하면 가장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940년 12월은 운동주가 3학년 2학기가 되는 시기이며, 행복하게 출발하였던 연회전문 생활도 이 시기에는 일제의 만행이 점점 노골화하면서 그에게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해 2월에는 운동주가 일본 유학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창씨개명 제도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8월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시 강제 폐간 당한다. 이러한 상황의식은 그에게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갈등으로 다가왔다.³³⁾ 신앙의 회의의 증거로 3학년 때에는 여름 방학 때 하기성경학교 돕기도 덜해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덜해지고 가정예배 때의 기도도 서툴러지며, 서툰 기도 후 ‘기도는 신앙대로 가는 것’이야 하면서 운동주가 씩 웃었다고 하는 증언이 있다.³⁴⁾ 이러한 정황으로 신앙의 회의기라고도 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상황의식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훨씬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개인의 죄나 욕망을 벗어나고자 한 「異蹟」의 세계에서 민족의 앞날 즉, 세상 고통에 대하여 생각하는 신앙으로 성숙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슬퍼하는 자의 복과 연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八福」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八福」에서 성경을 패로디한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까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애통(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오’를 운동주

33) 송우혜, 앞의 책, pp.210~226. 「연전 3학년 -신앙의 회의기, 정병욱과의 만남」에서 신앙의 갈등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34) 윤일주, 앞의 글, 앞의 책, p.157.

의 작품의 구조에다 대입하면 『八福』의 둘째 연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로 진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수정한 부분을 살펴보면 윤동주 자신도 첫 번째는 ‘저희가 슬플 것이오’로 했다가 두 번째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라고 수정했으며, 마지막에 ‘저희가 永遠히 슬플 것이오’라고 정착시켰다. 이 마지막 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따라 이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슬픔으로 일관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통의 수락만 있을 뿐 거기에 따른 위안이 생략되어 모든 고통이 슬픔으로 환원된다’고 본 견해도 있다.³⁵⁾ 그리고 한민족이란 민족공동체가 겪고 있는 처참한 고난의 현장에서, 그런 고난에 침묵하는 신에게 저항한 시라고 보는 이도 있다.³⁶⁾ 특히 신에게 저항한 시라고 본 이는 마태복음의 8복에 대한 피상적 해석에서 기인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진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과 운명의 슬픔을 즐겁게 받아드리는 기독교적 수난의식³⁷⁾이라 보기도 하고, 패로디와 역설이 전체구조를 형성하여 현세적 안락에 한 눈 팔지 말고 궁극적 진리와 궁극적 정의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보는³⁸⁾ 긍정적 견해도 있다.

연구자가 보기는 앞에서 언급한 마태복음의 8복도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역설적 복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永遠히 슬플 것이오’는 영원히 세속적이 아닌 기독교적인 복을 누릴 것을 다짐하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신의 아버지가 원하던 의사의 길, 할아버지가 원하던 관점사의 길보다 시인, 그것도 민족어가 죽어가고 독립의 기운을 감지할 수 없는 1940년대 벽두에 시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지극히 슬픈 일인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세속적이고 육적인 삶을 포기함으로써 당하는 윤동주 시대의 특별한 아픔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³⁹⁾가 바로 이 시이다. 그렇다면 이 시를 반기독교적인 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위로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슬퍼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35)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윤동주의 시』, 서거 50주년 기념 윤동주 전집② 『윤동주 연구』(서울, 문학사상사, 1995), p.167.

36) 송우혜, 앞의 책, p.219.

37) 김재홍, 『운명애와 부활정신』, 서거 50주년 기념 윤동주 전집② 『윤동주 연구』(서울, 문학사상사), p.237.

38) 마광수, 앞의 책, p.135.

39) 신익호, 『문학과 종교의 만남』(서울, 한국문화사, 1996), p.211.

이 땅의 위로인 것이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앞의 「異蹟」에 비하여 개인의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슬픔, 즉 고통을 하늘나라의 복으로 고백하는 경지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슬픔이 나의 것에서 '저희'의 것으로 집단 의식화 되었다는 점에서 한걸 성숙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啓示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또 太初의 아침」 전문(1941년 5월 31일)

이 작품은 연희전문 4학년 1학기에 쓴 작품이다. 연희전문 3학년 때에는 세편만 창작하였으나, 이때에는 「또 다른 故郷」(1941. 9.), 「별 헤는 밤」(1941. 11. 5.), 「序詩」(1941. 11. 20.) 등 많은 작품을 창작한다. 특히 「十字架」(1941. 5. 31.)는 같은 날 완성한 작품이다. 앞에 언급한 작품 외에도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는데, 이렇게 왕성한 창작욕을 발휘한 것은 졸업하면 일단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실제로 19편을 묶은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엮고자 하는 의욕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십자가」와 더불어 한층 더 성숙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의 성경적 패로디는 '이브의 해산'이 포함된 창세기 3장⁴⁰⁾ '사단의 유혹

과 타락'사건이다. 이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에덴 동산의 이브(하와)에게 뱀(사단)이 다가와 동산 가운데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먹게 유혹한다. 이브가 먹은 후 이어서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하여 부부가 먹음으로 두 사람이 선악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두르게 된다. 하나님이 이 둘에게 선악과 먹음을 질책하고, 뱀에게는 배로 기게 하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고, 이브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준 후 각각 가죽옷을 입힌 후 에덴동산에서 추방시킨다.

이러한 인류의 타락 사건을 짧은 시에 이입시키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전반부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화자이나 후반부에는 아담이라는 원죄적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된다.

이 시의 가치는 이러한 화자의 인식의 태도의 다양성 내지 이중성에서 획득된다. 우선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를 지극히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감수성 있는 인간적 화자가 된다. 눈이 덮여 있고 바람이 불어 전신주에 걸린 전기 줄이 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감각적 감수성이다. 만약에 이러한 감각적인 화자로만 일관되었다면 이 작품은 경박하게 되었을 것이다. 셋째 연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지는 과정⁴¹⁾을 5행으로 간략하게 패로디한 것이다. 넷째 연은 한 행으로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인 해산의 고통을 패로디하고 있다.⁴²⁾ 다음 다섯째 연에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든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⁴³⁾ 마지막 행에서는 화자 '나'의 노동의 고통을 패로디한 것이다.⁴⁴⁾ 이렇게 간략하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 장을 시로 형상화시켰다는 데서 운동주의 시적 역량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 작품은 상황의식이나 민족의식이 바탕이 된 기독교적 세계관의 이

40) 『아가페 큰 글 성경』-구약전서,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pp.3~4.

41) 창세기 3장 1절-13절, 위의 책, p.3.

42) 창세기 3장 16절, 위의 책, p.3.

43) 창세기 3장 7절, 위의 책, p.3.

44) 창세기 3장 17절, 위의 책, p.3.

입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설화를 그대로 옮겨 함축된 은유가 내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⁴⁵⁾ 단순히 신앙에 관한 자기 성찰⁴⁶⁾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꽤 길고 인류의 타락이라는 중요한 설화를 간략하게 시로 형상화하였다는 점과 화자 자신이 인류의 타락과 죄성 혹은 죄인된 아내를 포용한다는 점에서는 죄에 대한 수동적 태도라기보다 타락된 현세에 대한 능동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훨씬 성숙한 윤동주의 현세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의 아담으로서의 화자는 이브와 더불어 말없이 살아가는 대범한 남성적 어조까지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꽤로디한 작품이 하나 있다. 즉,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전통설화인 龜兔之說,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결합시킨 「肝」(1941. 11. 29.)이 바로 그것이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山中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肝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아!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아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龍宮의 誘惑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45) 마광수, 「동양적 자연관을 통한 '부끄러움'의 극복」, 『윤동주 연구』(서울, 문학사상사, 1995), p.349.

46) 오세영, 「윤동주 시는 저항시인가」, 위의 책, p.381.

끝없이 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

-「肝」전문 (1941년 11월 29일)

이 작품은 운동주의 교양의 토대와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서양문화유산의 대표적인 그리스 신화, 조선시대 소설 「별주부전」이나 판소리 「토끼전」의 토대가 되는 귀토지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결합시킨 운동주의 복합적인 의식구조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기로 한다.

이 시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와 토끼 이야기를 동서양의 두 고전이라고 보아 고전의 성공적인 시적 변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핀 글도 있다.⁴⁷⁾ 물론 이 글에서는 마태복음 18장의 패로디는 놓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감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까지 통합하여 견해를 피력한 글도 있다.⁴⁸⁾ 이러한 글들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 나름의 견해를 피력해 보기로 한다.

이 작품 속의 현상적 화자는 귀토지설에서의 토끼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꼼꼼하게 읽으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모순과 각 연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 시의 화자는 토끼와 프로메테우스라는 현상적 화자보다 내포된 화자, 즉 운동주의 내면적 자아 그것도 동서 고전과 신앙이 결합된 세계관을 표출한 내포된 시적 화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현상적 화자 토끼의 입장에서 첫째 연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귀토설화에서 토끼가 자기의 간을 강탈하려는 용궁의 무리들로부터 간을 바닷가 바위에 말리다가 그대로 두고 왔다는 기지로 살아 나와 한 숨을 돌리며 새삼 자기의 몸 속에 들어 있는 간이 소중함을 깨닫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토끼의 의식 속에는 거북이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용궁에서 꿈꾼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이었다는 것이 서로 교차된 것이다. 물론 토끼의 간은 몸 속에 애초부터 들어 있었지만, 습한 간을 펴서 말

47) 박호영, 「저항과 희생의 남성적 틀 -대표시 <간>의 구조 분석」, 『운동주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95), pp.355~368.

48) 신익호, 앞의 책, pp.212~215.

린다는 표현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와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좀더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둘째 연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와 토끼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까닭은 간을 대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끼가 용왕에게 간을 빼앗길 뻔한 것이나, 코카서스 산중에서 바위에 묶인 채 낮 동안 제우스 신이 보낸 독수리에게 간을 찢어 먹혀 고통을 받는 것이나, 다 간이 두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간은 단순한 간이 아니고 권력자나 거대한 조직의 폭압 앞에서 나약한 존재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힘으로 상징된다. 이런 두 이야기의 간이 그냥 열거만 된다면 꽤로 디로서의 기능도 약화되고 시적 비유도 성립되지 않는 법이다. 둘째 연의 첫 행은 프로메테우스와 토끼를 비유의 보조관념으로 묘하게 결합시켜 둘째 행에서 최소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을 지키는 것으로 시적 상황을 설정한다. 결국 둘째 연의 시적 화자는 토끼의 입장이라기보다 프로메테우스의 입장이 되어 권력의 하수인인 독수리를 방어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는 강력할 수 없고 그 방어는 성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약한 자세는 셋째 연과 넷째 연에서 화자 자신이 기를 독수리에 의하여 유린된다. 이 독수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에서 이 시 전체의 내포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자기가 길렀으니까 외부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쫓아내는 고통이 수반된 자의식으로 보는 견해⁴⁹⁾도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이 작품의 내포적 화자를 외부적 상황과 차단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는 화자로 본 경우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제우스 신이 보낸 독수리의 간악함을 모른 채 자기 자신과 벗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공격하는 독수리에 대하여 낭패감을 가지고 있는 화자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화자 '나'는 어쩔 수 없이 간, 즉 육신은 뜯어 먹힐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게 된다. 나를 뜯어먹음으로 인해 독수리 즉 간악한 무리는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적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다른 까닭은 이 시가 쓰여진 운동주의 연회전문 졸업반 시절의 급박하게 돌아가

49) 김홍규, 「운동주론」, 『창작과 비평』(1974, 가을호), p.672.

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나’는 비록 육신을 뜯어 먹혀도 다시는 헛된 욕망이나 감언이설에 속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 부분이 다섯 째 연이다. 이 다섯 째 연에서는 청자로 거북이가 등장하여 프로메테우스의 입장에서 비록 육신은 뜯겨도 거북이 너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위기일발의 순간에 용궁을 탈출하여 생명을 부지한 토끼처럼 나의 여월 대로 여원 내 육신 속에 잠재해 있는 분별력의 축수는 놓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토끼와 프로메테우스의 입장을 오가며 시적 화자가 내린 결론을 운동주의 경험적 자아 쪽으로 옮겨보면 점점 조여오는 식민지적 극한 상황에 보잘 것 없는 육신의 살점들은 빼앗기면서도 의식의 축수는 반대로 독수리 발톱처럼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시적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끝없는 동정을 보내어 결국 화자 자신이 프로메테우스와 동일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것도 불을 도둑질한 죄로 제우스 신의 저주를 받아 낮에는 간을 유린당하고 밤에 재생된 간으로 최소한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프로메테우스와 동일해진다. 이 동일성의 획득 과정에 느닷없이 마태복음 18장 6절이 패로디 되어 등장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로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⁵⁰⁾

이 부분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는 데 대한 답에서 연유된 예수님의 말씀이다. 어린 아이보다 더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데 예수를 믿는 어린 아이 중 하나를 실족케하면 당시의 로마 형벌 중 하나인 연자 맷들로 벌한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실족, 즉 범죄에 대하여 언급하신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어 7절부터 10절까지 범죄에 대한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범죄한 손과 발 그리고 눈까지 제거하라고 명령하신다.⁵¹⁾ 이 때의 범죄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징벌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윤리적인 범죄로 확

50) 『아가페 큰 글 성경 -신약선서』, p.29.

51) 위의 책, p.29.

대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시에서처럼 토끼가 가진 헛된 욕망처럼 인간의 헛된 욕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성경의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계신 교만, 특히 자기 자신보다 낮은 자에 대한 교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거북이나 독수리의 잔악함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18장 6절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운동주의 의식 속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바위에 매달린 것과 연상되어 우연히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수리에게 육신의 중요 부분인 간을 뜯기는 치열한 고통 그것에 대한 동일성, 즉 올바르게 순수함을 지키려는 자의 식은 끝없는 자기 희생의 길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적 화자의 의식⁵²⁾으로 성경 구절이 때로 되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시적 화자의 갈등과 나약함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깨달음 다음에 화자 자신에 대한 엄격하고도 가혹한 채찍질의 표상으로서 맷돌에 매달린 프로메테우스가 설정되고 그 맷돌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실족하는 자기 자신의 육신 즉 욕망의 통로까지 버릴 것을 강조하고 계신 성경구절과 연상되었다고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작품을 그리스 신화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설화의 교양체함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가 설정되어 두 체험이 교차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시적 화자 자신에 대한 준열한 반성에 이르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 반성은 결과적으로 점점 조여오는 일본 제국주의의 제우스신 같은 강력한 폭압에 운동주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며, 그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고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반성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그가 내고자 한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출판이 이양하 교수와 상의하여 검열의 통과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내지 않기로 하고 난 뒤의 작품이다. 말하자면 일제의 만행에 대한 분노 속에서 쓰여진 작품인 셈이다.⁵³⁾

운동주의 福岡형무소에서의 최후, 그것도 생체 실험으로 인하여 피골이 상접한 채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죽어간 그의 최후를 생각하며 이 작품을 해석한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면도 많다.

52) 신익호, 앞의 책, p.214.

53) 정병욱, 앞의 글, 앞의 책, p.141.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을 페로디 한 작품들 속에서의 시적 화자는 운동주의 점차 성숙되어 가는 현세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즉 「異蹟」에서의 개인적 욕망 억제가 「八福」에서 다소 민족의식을 획득하고 「또 太初의 아침」에서는 원죄적 세계관으로 확대되었다가 「肝」에서 상황의식까지 첨가된 세계관으로 바뀐다.

2) 자기 희생과 속죄양 의식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굳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여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세계관에도 유교적 가치관에 의하여 아버지를 위해 몸을 공양한 심청의 효도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장수들의 이야기 속에서 충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씻는다는 속죄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된다. 특히 기독교적 입장에서 속죄론은 빈번히 전개되고 있다.⁵⁴⁾ 운동주의 시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속죄 혹은 다른 이의 죄를 위한 희생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없는가, 있다면 그 양상을 그의 짧은 시작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초한대-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光明의 祭壇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祭物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心地까지
白玉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54) ① 존 미에이, 하문호 역, 『救贖論』, (서울, 성광문화사, 1983), pp.31~64.
(속죄의 과정) ①희생(sacrifice)-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침 ②유화(propitiation)-그리스도께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풀게됨 ③화복(reconciliation)-인간과 하나님 관계 회복하여 조화와 평화롭게 됨 ④구속(redemption)-인간의 죄로 인한 속박과 악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음
⑤민영진 편, 『성서 백과 대사전』 1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p.700~705.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솟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暗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祭物의 偉大한 香내를 맛보노라.

-「초 한 대」 전문 (1934년 12월 24일)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은진중학교 3학년 때 쓴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작품제작 날짜를 명시한 최초의 작품이다. 이 작품과 함께 「삶과 죽음」, 「내 일은 없다」가 모두 같은 날짜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같은 날 3편을 동시에 완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초고로 두었던 것을 옮겨 정리한 날이 이 날이라고 보아도 틀린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하필 이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동주는 그전에도 시를 썼겠지만 왜 이 날로부터 제작 날짜를 기입하기 시작하였을까 하는 문제에 우선 주목해 보기로 한다. 1934년 12월에 실시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은진중학교 3학년이 그와 문익환 목사와 함께 다닌 그의 고종사촌 송몽규가 송환범이라는 필명으로 응모하여 「술가락(술가락)」이라는 콩트가 당선된다. 송몽규의 이러한 사실은 193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작품으로 현재에도 남아 있다. 신춘문예의 권위로 미루어 볼 때 중학교, 그것도 간도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의 당선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윤동주는 자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익환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윤동주는 송몽규를 두고 ‘대기는 만성이다’라고 버리었다고 한다.⁵⁵⁾ 말하자면, 윤동주는 문학에서의 선의의 경쟁자로 송몽규를 설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쟁관계는 은진중학교 3학년을 수료한 이후 송몽규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고 윤동주는 숭실중학으로 전학을 가 평양으로 떠나면서 구체성을 뒤흔지는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송몽규는 소설가로 평가되지 못하고,

55) 송우혜, 앞의 책, pp.104~107.

물론 그 자신의 행동적 성향으로 계속 쓰지 않은 탓도 있지만 운동주는 민족시인으로 추앙 받는 점으로 보아도 대기는 만성임에 틀림없다.

이 작품은 이러한 연유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운동주의 첫 작품이며 다른 작품 두 편 역시 같은 위상을 가지겠으나, 세 작품 가운데 자기 희생을 내포된 의미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는 보통 자기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힌다는 점에서 누구나 자기희생의 사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분히 기독교적 세계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인류를 위한 속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 시가 정착되었다는 점이 그것을 반영한다. 첫째 연에서는 초를 방안에 밝히고 향내를 맡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단순하게 제시된다. 그러나 둘째 연부터는 촛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의 모습을 '光明的 祭壇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祭物을 보았다'라고 하여 단순한 초가 아니라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인식되어 십자가에 희생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것처럼 느껴진다.⁵⁶⁾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초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아직도 화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지 않는 국외자인 것이다. 셋째 연의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은'에서 염소의 갈비뼈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를 하기 위하여 생축을 잡는 구레⁵⁷⁾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의 '白玉 같은'이나 넷째 연에서 '선녀처럼'의 비유는 관습적인 수준이라고 보아진다. 마지막 다섯 째 연에서 암흑이 촛불의 빛 때문에 도망하였다는 인식 그것도 빛을 강력한 힘의 소유자인 매로 비유하고 암흑을 나약한 썩으로 비유한 태도 역시 성경에 근거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현상적으로는 촛불로 밝히는 방안에 비하여 방 밖에는 엄청난 암흑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의 빛에 대한 강력한 인식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⁵⁸⁾의 빛이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⁵⁹⁾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이라고

56) 신익호, 앞의 책, pp.226~228.

57) 테워기 17장 1절~9절, 『아가페 큰 글 성경 -구약전서』(앞의 책), p.172.

58) 위의 책, 구약전서, p.1.

59) 위의 책, 신약전서, p.157.

볼 수 있다. 이렇게 빛을 발한 제물의 향내를 맡을 수 있는 나의 방은 성스러움과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간인 것이다.

이상의 이 시에서 촛불의 자기 희생에 대한 운동주의 인식의 태도는 소년기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평양 체험을 하기 전이며, 연희전문 시절이나 일본 유학 시절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상황의식을 자각하지 못한 간도의 소년으로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그 당시의 소년으로서는 결코 평범한 인식은 아니다. 다만 민족의식이나 상황의식보다 순수한 기독교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전야에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희생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敎會堂 꼭대기
十字架에 걸리었습니다.

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鐘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幸福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十字架」 전문 (1941년 5월 31일)

이 시는 앞에서 인용하여 살펴본 「또 太初의 아침」과 같은 날 완성된 것으로 운동주가 기록한 작품이다. 이 시를 창작할 때는 연희전문 졸업반이고, 이 때의 시대적 상황은 1940년보다 더욱 심각하여진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미 지난해에 강제 폐간되었고, 이 해 2월 유럽에서는 뫼멜이 지휘하는 독일 군이 북

아프리카 전신까지 진출한다. 3월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어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4월에는 그가 전문학교시절 동안 애독하던⁶⁰⁾ 순수 문예지 『문장』과 『인문평론』이 강제 폐간된다.

윤동주 개인적으로는 5월에 후배 정병욱과 함께 기숙사를 나와 종로구 누상동 소설가 김송씨 집에서 하숙을 하다가 김송씨가 요시찰인물이라 그들까지 곤욕을 치른 후 9월에는 하숙을 북아현동으로 옮기는 일이 있게 된다.

이 작품을 넷째 연에 집중하여 해석한다면 성경,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패로디한 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적 화자의 죽고자 하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비유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패로디보다 시적 화자의 자기 희생이라는 측면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이곳에서 언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 속의 현상적 화자는 교회당 밑에 서서 햇빛 속에서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한 화자의 시적 상황이 첫째 연과 둘째 연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화자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걸린 첩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희망하면서 바라본다. 이 올라가기를 희망함이 내포적 의미 즉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시는 한갓 어린 아이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심의 토로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셋째 연은 넷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연과 연결된 시적 의미 파악을 전개할 때 십자가를 오르고자 하는 행위는 예수의 삶을 담고자 하는 의지로 상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둘째 연과 셋째 연에서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삶 즉 십자가 처형, 예수 자신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용기 있고 예정된 선택이었지만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헤롯왕은 정치적 판단과 목적에 의한 정치범⁶¹⁾으로 몰아 처형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처럼 용기 있게 선택하지 못하는 자신의 갈등이 표출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과 윤동주의 복강형무소에서 옥사와 연결시킨다면 그의 죽음을 예언한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진술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은 어떠한 일본 제국주의의 재판 판결문⁶²⁾에 의하면 독립운동이 죄목인

60) 윤일주, 앞의 글, 앞의 책, p.158.

61) 『아가페 큰 글 성경 -신약전서』, p.50.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다.

62) 『문학사상』, 1982. 10. pp.162~170. 일본 京都재판소 「윤동주에 내려진 판결문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범으로 몰려 예수님처럼 적국의 주도화에 죽어 갔던 것이다.

넷째 연에서는 시적 화자의 십자가 바라봄의 내포된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즉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에게 ‘십자가가 허락된 다면’에서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죽음과 비유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 즉 운동주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이고 역설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로 형상화하고 있다. 괴로움과 행복의 모순은 성경적 문맥 속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고통이 괴로웠으면 불행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행복하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은 성경적 세계관이나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손쉽게 해결된다. 예수님의 최후에 대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다. 이를 한자어로 十字架上七言이라 한다.⁶³⁾ 이 일곱 마디를 살펴보면, 그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동안, 로마 병정에 대한 용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염려, 함께 달린 강도에 대한 구원 등과 같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육신적 고통에 대한 반응,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 죽음의 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기 의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칠언 가운데 그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 준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이다. 이러한 괴로움 속의 죽음이 바로 ‘괴로웠던 사나이’이고 ‘행복한 예수

전문,과 윤일주 교수의 해설.

63) 『아가페 큰 글 성경 -신약전서』, p. 84에서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를 종합한 십자가 상의 칠언을 다음과 같이 그 발언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 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장 34절).
- ②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장 43절).
- ③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요한복음 19장 26절-27절).
- ④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 ⑤ 내가 목이 마르다(요한복음 19장 28절).
- ⑥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장 30절).
- ⑦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자적 과업이 '다 이루었다', 즉 그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고 3일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 곁으로 다가가는⁶⁴⁾ 행복한 과정의 출발이라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완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편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것이다. 이렇게 단 두 행에서 이러한 깊고 근본적인 신앙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한 보조관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고백 속에 시적 화자는 자기 목숨을 그것도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작품의 마지막 다섯째 연이다.

이상과 같은 「十字架」에서의 화자의 죽겠다는 결의는 시에서 걸으로 드러난 문맥으로는 시대적 상황을 다양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마지막 연에서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라고 하여 어두움을 통한 상징으로서의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운동주 자신은 이 시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보다 9일 전에 완성한「序詩」(1941. 11. 20.)를 맨 첫 머리에 두고 19편 묶은 13편 책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주는 이 원고 묶음으로 77부 한정판 형식의 시집을 내려고 이양하 교수와 상의하였으나 이 교수가 시대적 상황으로 「十字架」, 「슬픈 族屬」, 「또 다른 故郷」 등이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고 운동주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따를 것 같으니 시집 출판을 보류하자고 한다. 그래서 필사한 3부를 그 자신이 1부, 이양하 교수에게 1부, 그리고 후배 정병욱에게 1부를 주었다. 그 가운데 정병욱이 가지고 있던 것이 해방 이후 초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정음사, 1948)의 기본 원고가 된다. 운동주는 이 시집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여 서울에서 안되면 용정에서라도 시집을 출판하려고 시도했으나 출판비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한다.⁶⁵⁾

이러한 작품외적 정황이 더하여 지면 「十字架」에서의 자기 희생은 결국 민족의식과 상황의식이 내포된 자기 희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결코 저항시가 아니라고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64) 사도신경 중,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부분.

65) 송우혜, 앞의 책, pp.247~249.

이상과 같이 「초 한 대」에서 ‘초’에다가 시적 화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자기 희생보다 「十字架」에서의 자기 희생을 민족의식으로 상징된 자기 희생으로 보면 운동주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숭실중학 시절의 평양 체험으로 배태된 민족의식이 연희전문 시절에 겪은 상황의식으로 현세적인 세계관에다가 민족적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것으로 성장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족적 현실주의가 바탕이 된 현세적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다.

3) ‘부끄러움’의 정체와 悔改

운동주의 시에 ‘부끄러움’과 관련된 시어가 등장하는 시점은 1941년이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 때에 등장하는 까닭을 파악하면 운동주 시에서의 ‘부끄러움’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다.

부끄러움과 관련되는 기독교적 개념은 悔改라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구약성경에서의 개념과 신약성경에서의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⁶⁶⁾ 구약에서는 주로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속죄제라는 제사로 뉘우침을 고백한다.⁶⁷⁾ 이 때의 제물이 양떼의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이다. 여기서 속죄양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예언자적 회개를 요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⁶⁸⁾ 외친다. 이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⁶⁹⁾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신약에서의 회개는 세속적인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 세시지가 강하다. 그러나 그 당대의 유대 기성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식민지적 상황에서 자기 자리 고수에 급급하는 헤롯왕에게는 대단한 도전이 되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예수의 죽음은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의식에 의한 기독교 증의 음모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회개의 개념은 ①마음의 변화 ②후회나 양심의 가책 ③윤리, 종교적 의미에서

66) 민영진 편, 『성서백과 대사전』 12권(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pp.506~573.

67) 레위기 5장 5절-6절, 『아가페 큰 글 성경 -구약전서』(앞의 책), p.151.

68) 마태복음 2장 2절.

69) 마태복음 4장 17절.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등 광범위하다.⁷⁰⁾

'부끄러움'과 관련된 시어들이 등장하는 시를 그가 발표한 순서대로 부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무화와 일사귀로 부끄러운 대를 가리고(「또 太初의 아침」-1941. 5. 31.)
- ②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길」-1941. 9. 31.)
- ③판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별 헤는 밤」-1941. 11. 5.)
- ④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序詩」-1941. 11. 20.)
- ⑤나는 나의 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懺悔錄」-1942. 1. 24.)
- ⑥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마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태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사랑스런 遺憶」-1942. 5. 13.)
- ⑦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쉽게 씌어진 詩」-1942. 6. 3.)

이상 7편이 전부이다. 이 7편 가운데도 시적 화자가 자신과 관련하여 부끄럽다고 진술한 작품은 「序詩」와 「懺悔錄」, 「쉽게 씌어진 詩」 3편이다. 「별 헤는 밤」의 '부끄러운 이름'이 인용한 부분의 바로 앞에서 화자가 땅에다 자기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린 이름이니까 간접적으로 연결될 뿐이다.

이렇게 3편 혹은 4편의 작품이 모두 1941년 11월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다. 그 가운데 「쉽게 씌어진 詩」는 일본 유학 시절의 立教大學시절에 쓴 시로 그가 완성하여 창작날짜를 기입한 마지막 작품이다.

1941년 11월은 운동주의 연회전문 졸업반 마지막 학기의 끝 무렵이다. 특히 전시체제로 학기가 단축되어 이 해 12월 27일 졸업하게 되었으니 특히 운동주로서는 졸업후의 진로를 놓고 크게 고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증언하고 있는 정병욱의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가을 학기에 올라와서 우리는 다시 이삿짐을 꾸리고 이번에는 북아현동으로 옮겼다. 7, 8명의 하숙생이 들끓는 전문적인 하숙집

70) 민영진 편, 앞의 책, p.567.

이었다. 오붓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뒤숭숭한 전문적인 하숙집으로 옮겨 온 우리는 꽤 당황했었다. 어딘가 어설피고 번거롭고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였다. 게다가 졸업반인 동주 형의 생활은 무척 바쁘게 돌아갔다. 진학에 대한 고민, 시국에 대한 불안,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동주 형은 이때 무척 괴로워하는 눈치였다.⁷¹⁾

정병욱이 회고한 이 시기는 당시 요시찰 인물이던 누상동 소설가 김송씨 집에서 일제의 지나친 감시로 전문하숙집을 옮긴 때의 언급이다. 이상과 같이 윤동주의 진학, 시국, 가정에 얽힌 갈등의 표출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序詩」 전문 (1941. 11. 20.)

이 작품은 정병욱이 보관하였다가 초판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서울, 정음사, 1948)의 중요 원고가 된 윤동주 자필의 원고본에는 「序詩」라는 제목이 없다.⁷²⁾ 그러나, 초판을 낼 때, 원고본 3부 가운데 윤동주가 가지고 용정 고향으로 가져갔던 원고본에는 「序詩」라는 제목이 있었다고 한 윤일주의 증언에 따라 붙어졌다. 아마 서울에 있는 원고에는 제목이 없다고 1976년에 이미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 같다.⁷³⁾ 이 작품은 윤동주의 대표작으로 윤동주 연구 논문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있으며 단일 논문도 많이 나와 있다.⁷⁴⁾

71) 정병욱, 앞의 글, 앞의 책, pp.137~138.

72)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서울, 민음사, 1999), p.140.

73) 윤일주, 앞의 글, 앞의 책, p.159.

74) ㉠이기철, 「삶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 -대표시 「序詩」의 구조 분석」(『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pp.413~426.

이 작품은 다분히 운동주에 의하여 생전에 발간을 염원한 원고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권두에 序詩로 게재하기 위하여 쓰여진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까닭은 우선 원고본 19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작품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원고본 차례에서의 맨 마지막 작품은 「별헤는 밤」(1941. 11. 5.)인데 이 작품보다 보름 늦게 쓴 작품이다. 이러한 경위를 정병욱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별헤는 밤」을 완성한 다음 동주는 자선 시집을 만들어 졸업기념으로 출판하기를 계획했다. 「서시」까지 붙여서 친필로 쓴 원고를 손수 제본을 한 다음 그 한 부를 내게다 주면서 시집의 제목이 길어진 이유를 「서시」를 보이면서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시」가 되기 전) 시집 이름을 「병원」으로 붙일까 했다면서 표지에 연필로 <병원>이라고 써넣어 주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병원이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고 겸손하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⁷⁵⁾

이 증언에 의하면 「序詩」 때문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라는 시집 제목으로 독특한 긴 제목이 정해졌다. 이 서시에 「序詩」를 제외한 18편의 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으며, 시집 제목은 이 작품의 중요 제재 자연을 포괄하고 있다.⁷⁶⁾

이 작품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양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시간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글도 있지만⁷⁷⁾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첫 행부터 한 문장을 4행으로 갈라놓은 넷째 행까지는 과거시제 「괴로

㉔이동순, 「창조적 진화의 꿈과 삶의 정직성」, 『한국 대표시 평설』(서울, 문학세계사, 1983), pp.276~282.

㉕이승훈, 「운동주 「序詩」 분석」, 『운동주 연구』, (앞의 책), pp.427~449.

㉖이어령, 「어둠에서 생겨나는 빛의 공간 -운동주 「序詩」 분석」, (앞의 책), pp.450~464.

㉗홍희표, 「별과 죽음의 변용」, 『한국현대시 작품론』(서울, 문장사, 1981), pp.283~291.

75) 정병욱, 앞의 글, 앞의 책, p.140.

76) 이기철, 앞의 글, 앞의 책, p.417.

77) 이승훈, 앞의 글, 앞의 책, pp.427~449.

워했다'로 끝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적 화자의 과거의 괴로운 삶에 대한 회상이다. 다음으로 다섯째 행부터 역시 한 문장을 4행으로 갈라놓은 여덟째 행까지는 미래시제 '걸어가야겠다'로 끝나고 있다. 이것은 화자의 미래에 대한 각오의 피력이다. 다음으로 한 행으로 끝나고 있는 둘째 연은 현재시제이다. 이 시의 시간 구조는 과거→미래→현재로 된 계기성이 없는 단절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를 주도하고 있는 시간은 현재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연구자는 이미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⁷⁸⁾ 즉 화자는 현재의 시간에 있으면서 의식 속에서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에 대한 각오를 다짐한다. 그러나, 그 각오 다짐에 장애가 되는 것이 별이 바람에 스치는 오늘밤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간 구조에다 운동주의 경험적 자아를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연회전문도 이제 졸업해야 하는 마당에 그 자신이 가고자한 시인으로서의 앞날과 일제 광분 때문에 알아 보이지 않는 민족의 장래와 가족들의 기대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면서 그의 지난날을 회상하고 장래의 각오도 다짐해 보는 것이다. 그가 회상하는 과거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일세의 바람 같은 미풍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나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생각해 보니 과거는 부끄러움 투성이의 삶이라는 것이다. 이 부끄러움의 정체는 이 시 속에서보다 이 시를 완성하기 근 6개월 전의 시 「바람이 불어」(1941. 6. 2. 원고본 열 두 번째 작품)의 3, 4연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과거의 삶이 한 여자를 정열적으로 사랑하지도 못했고 시대의 아픔, 즉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놓고 고민해 보지도 못했다는 그 자신의 자책이 노출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러한 괴로움을 「序詩」 앞부분에다 대입해보면 그의 소극적인 태도 특히 개인적으로는 여성,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식민지적 상황이

78) 양왕용, 『現代詩教育論』(서울, 三知院, 2000), pp.140~142.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자신의 겸손인 면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시작에만 매진하면서 시 속에 간혹 이러한 것이 비추어졌지만, 개인적 삶이나 민족 문재에도 다소 관심이 없었다는 자기 자신의 반성일 수도 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각오를 피력한 첫째 연의 후반부를 볼 때 그러한 추측이 타당성을 획득한다. 즉 과거에는 별을 노래하기에 정성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 즉, 현재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별은 삶과는 떨어져 있고 환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죽어 가는 것은 이 지상의 생명체들이고 일제의 만행에 신음하며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이다. 이렇게 피력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를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로 번역한 일본인이 있다. 그리고, 이 번역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일본식 표현이라고 비판한 일본인도 있다.⁷⁹⁾ 물론 지나친 의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 그러나 '모든 죽어 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결과론으로 보면 그렇지만 삶이라는 과정론으로 보면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인 것이다. 운동주가 별과 같은 현실과 거리를 둔 자연물보다 인간들의 살아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를 쓰겠다는 각오는 어찌면 운동주의 원고 가운데 끝내 패전 직후 소각되어 사라져 버린 京都 同志社大學 시절의 작품들⁸⁰⁾에 들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언급에서는 전혀 기독교적 세계관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다짐한 첫째 연 둘째 행,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라고 단서로서의 첫째 행이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나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하는'에서 나오는 죽음 의식은 바로 육신의 죽음이다. 육신은 죽고 영혼은 영

79) 木下長宏, 고제영 역, 「운동주론을 위한 네 개의 단장」, 『일본 지성인들이 사랑 하는 운동주』(서울, 민예당, 1988), pp.133~135.

이 글에서 伊吹郷의 『운동주 시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序詩」 번역을 비판하고 있음.

80) 伊吹郷, 윤일주 역, 「時代의 아침을 기다리며」(下), 『문학사상』(1984. 4.), p.312에서 압수된 운동주의 서적 노트 원고를 추적한 결과 패전 때 사법성이 사상 사건 관계서류의 소각을 명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한꺼번에 소각되었을 것이라며 애통해 하고 있다.

원히 산다는 기독교적 생명의식은 다른 작품 「또 다른 故郷」의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故郷에 가자’라는 부분에 나와 있다. 이 세상에 육신, 즉 백골이 살아 있는 동안 하늘, 즉 하나님께서 계신 또 다른 故郷을 우러러 다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과 유리된 하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하늘나라를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序詩」에서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도록 이 땅에서 앞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각오의 괴력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序詩」는 그의 앞으로의 삶의 방법과 시작 경향의 변화를 예고하는 작품이다.

운동주의 同志社大學에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그의 同志社大學 2년 연하의 동창이며 신학과 졸업생이고 재일 교포이며 이런 인연으로 同志社大學 구내의 운동주 시비 건립을 주도한 韓皙曦의 글⁸¹)이다. 그는 1933년 예과에 입학하여 예과 2학년 때 폐결핵으로 2년 휴학하고 나서, 1942년에 복학, 그 해 10월 단축으로 예과를 수료하고 신학과에 재학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운동주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다. 마주칠 수도 있었는데 운동주는 고독 속에서 시처럼 침잠하며 시작에 몰두한 탓에 마주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긴 인용이 되겠으나 연구자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에 인용해 보기로 한다.

그렇지만 詩碑를 세우고 난 근래에 와서는 그것만도 아닌 다른 일면을 보여 주는 사진과 동기생의 증언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간도 지방에까지 찾아가서 취재하여 1995년 3월 11일 방영된 ‘NHK스페셜-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도시샤의 사각모를 쓰고 서서 미소짓고 있는 운동주와 여러 남녀 학우들이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어우러져 찍은 사진 등, 이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공부에만 열중하는 학생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동기생이었다는 모리다 하루(森田八儿)씨가 하는 말은 달랐다.

“영문과에 남았던 몇 안 되는 학생들이 이따금 영문과 교수님 댁에 불러 어가서 차를 대접받곤 했는데, 그때 교수님과 히라누마(平沼 : 운동주)씨 사이에 빈축적이 문제 등으로 한차례씩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지요. 두 분이 모두 격앙된 감정으로 입씨름을 벌이곤 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질문에 대답이나 하는 투가 아니라, 자기는 그런 기분으로 이 학교에 온 것이 아니

81) 韓皙曦, 「한 점 부끄럼 없기를-운동주 시비 건립에 부쳐」, 앞의 책(서울, 민에당, 1998), pp.29~44.

라고 하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졸업생 명단을 보면, 1945년 9월 영문학과 4명의 졸업생 가운데 사와다 하루(澤田八儿)라는 이가 있었다. 모리다(森田)씨의 구성(舊姓)인 것 같다. 4명 가운데 3명은 여학생이었다.

이 사진과 모리다씨의 증언은 중요하다. 윤동주는 우리가 추측하는 것만큼 고독하지도 과묵하지도 않았고, 교제하던 그룹도 있었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을 때에는 비록 교수님 면전에서라도 의사를 밝혀 분명히 말할 줄 아는 대담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기는 지극히 어렵게 되었던 시대로, 특히 조선인은 그것만으로도 겉거의 이유가 성립되었으며, 더구나 한글로 쓰고 말하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시대로 바뀌어져 있었다.⁸²⁾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王朝의 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一滿 二十四年 一個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懺悔錄」 전문 (1942년 1월 24일)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본 유학하기 위한 기본 서류 ‘도항증명서’를 떼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平沼東柱라고 창씨개명계를 연희전문에 제출한 1942년 1월 29일 보다 5일전에 완성한 작품이다.⁸³⁾ 그리고, 시작 완성 당시의 교뇌는 다른 초

82) 한석희, 앞의 글, 앞의 책, pp.30~31.

고에는 찾아보기 힘든 초고 원고 아래쪽에 기록된 낙서들을 통하여 충분히 엿볼 수 있다.⁸⁴⁾ 원고 오른쪽부터 차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落齋, 詩人の 告白,⁸⁵⁾ 渡証明, 渡航, 航, 上級, 힘, 生存, 生(두 번 반복), 文學, 詩란?, 不知道, 古鏡(두 번 반복)⁸⁶⁾, 悲哀禁物 그리고 시와 낙서 사이에 영어로 썼다가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버린 것 가운데 poem, poetry, sentimental, happy, joy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낙서 가운데 그의 가장 고심한 내면세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渡航証明'인 것 같다. '詩人の 告白'이라는 낙서 다음에 세 번, 즉 渡証明, 渡航, 航으로 분리하여 쓰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상급학교 진급을 위한 창씨개명에 대한 고뇌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과 시에 대한 고뇌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연희전문 졸업반 시절의 운동주의 갈등이 다 표출되어 있다.

이곳에서 주목할 또 다른 낙서는 '古鏡'이다. 두 번이나 반복한 古鏡은 이 작품의 중요한 재제가 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두고 한 낙서이다. 이 사물은 이 작품의 첫째 연 뿐만 아니라 넷째 연에도 '나의 거울'로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첫째 연에서 그러한 의식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얼굴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속에 남아 있으며 그 거울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비친다는 것 자체가 욕되다고 보는 것은 그 당시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 尹東柱라는 이름을 平沼東柱 즉 히라누마 도오쥬우로 바꾼다는 사실 자체를 욕되다고 본 것이다. 말하자면 국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일본 그것도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아 간 적국의 이름으로 바뀌어서라도 유학을 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그 자신의 민족적 세계관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단순한 젊은 날의 반성이고 이 반성이 시대와 관련되었으리라는 증거가 없다⁸⁷⁾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왕조의 유물에서 연상되는 것이 박물

83) 송우혜, 앞의 책, pp.253~256.

84)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앞의 책), p.178.

85) 권영민 편저, 『운동주 전집』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앞의 책), pp.10~11에는 '詩人の 生日'이라 잘못 읽고 있음.

86) 위의 책, p.11에서 古鏡을 「별헤는 밤」에 나오는 어릴 적 친구 '鏡'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임. '녹이 낀 구리 거울'을 가리킨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관에서 보는 동경과 그 곳에 비쳤을 우리 선조들의 얼굴이다. 말하자면 신라로부터 조선초기까지 얼굴이다. 이렇게 그는 민족의식을 형상화했다.

둘째 연의 만 24년 1개월은 이 시를 완성한 날자와 그의 출생연월일인 1917년 12월 30일 사이의 시간이다. 따라서 이 시를 쓴 시점까지 살아온 그의 전생애인 24년 1개월과 지금까지 살핀 그의 모든 고뇌가 포함된 전인격적 참회⁸⁸⁾를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단 한 줄로 줄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둘째 연이다. 말하자면 그는 작품 속에서는 단 한 줄로 줄이고 대신 원고지 여백에다 낙서로 남기고 있다. 셋째 연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래지향성의 근거는 운동주의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육사와 같이 유교적세계관과 그의 저항의지에 의한 미래지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운동주의 경우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그의 신앙적 신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 작품에 이어서 살펴볼 「쉽게 씌어진 詩」의 끝 부분에 의하여 그 근거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쓸 한 줄의 참회록은,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참회록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표현이다. 말하자면, 현재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미래를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전인격적 참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그의 일본에서 창작한 시나 산문 가운데 京都에서의 두 학기(1942. 10~1943. 7)동안 쓴 많은 시가 사라지면서 단지 동경 立教大學 시절(1942. 4~1942. 7)에 쓴 「흰 그림자」(1942. 4. 14.), 「흐르는 거리」(1942. 5. 12.), 「사랑스런 追憶」(1942. 5. 13.), 「쉽게 씌어진 詩」(1942. 6. 3.), 「봄」(1942) 등 5편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京都재판소 판결문⁸⁹⁾에서 비록 일제에 의하여 다소 왜곡되었겠지만 그 자신이 진술한 근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판결문을 꼼꼼히 살핀

87) 오세영, 「운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운동주 전집② 운동주 연구, 앞의 책), p.381

88) 송우혜, 앞의 책, p.256.

89) 윤일주 역, 「운동주에 내려진 판결문 전문」, 『문학사상』(1982. 10), pp.162~167
과 이 글의 해설격인 「새삼 이는 울분을 가누며」, 같은 책, pp.168~170에 나타나 있음.

그의 동생 윤일주에 의하면 운동주의 협의는 결국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모국의 친구들이 이역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민족의 앞날을 근심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책을 주고받고 앞날을 기약했다는 것이되, 뚜렷한 신념을 갖고 하였으며, 판결문 서두에서 끝까지 두 분(운동주와 송몽규)이 얼마나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독립을 갈망했는지 알게 된다.⁹⁰⁾

이상의 언급과 앞에서 살핀 同志社大學 동기생들의 운동주에 대한 새로운 기억에서 보여주고 있는 당당한 민족의식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연에서 거울을 닦는 행위는 민족의 장래를 위한 자기 자신의 의식의 같고 닦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닦음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다섯째 연에서 ‘슬픈 사람의 뒷 모양’으로 상징하면서 이 작품은 끝을 맺는다.

이 작품에서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한 까닭은 그의 기독교 세계관이 聖과 俗을 분리하는 이원적 세계관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 속에 수렴하는 것으로 일제 말 신사참배와 친일화 되어 간 본국의 기성 기독교단의 행태와는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⁹¹⁾ 그리고 운동주 자신은 이러한 참회록에서 ‘절망 속의 희망’⁹²⁾을 보고 있는 것이다.

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學費 封套를 받아

90) 윤일주, 위의 글, 위의 책, p.170.

91) 송건호, 『일제하 민족과 기독교』, 『민족주의와 기독교』(서울, 민중사, 1981), pp. 96~101.

92) 함석헌, 『절망 속의 희망』, 『민중과 한국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pp. 277~286.

大學 노-트를 끼고
늬는 教授의 講義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등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沈澱하는 것일까?

人生을 살기 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六疊房은 남의 나라
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時代처럼 을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의 握手

-「쉽게 씌어진 詩」 전문 (1942년 6월 3일)

이 작품은 일본 동경에서 立教大學 마크가 인쇄된 편지지에 쓰여져, 그 당시 서울에 있던 연회전문 시절 친구 강처중의 편지 속에 넣어 국내에 반입되어 해방 이후에 경향신문에 정지용에 의하여 공개된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⁹³⁾

이 작품 속의 시적 화자는 유학생활 그것도 일본의 여섯 장 짜리 다다미방에서 하숙하며 유학하는 운동주의 경험적 자아와 그대로 일치하는⁹⁴⁾ 화자이다. 따라서 그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시로 형상화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 제목마저 「쉽게 씌어진 詩」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의 부끄러움은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진 데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이 시의 화자는 그렇게 단순한 화

93) 송유혜, 앞의 책, pp.264~272, pp.361~396 등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94) 송유혜, 앞의 책, p. 262. 문익환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京都로 옮겨가기 직전 운동주의 하숙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집은 2층이었고 운동주의 방은 이층 다다미 6장 짜리였다고 기억했다.

자가 아니다. 그는 둘째 연에서 시인을 ‘슬픈 天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슬프다’는 정서는 시대적 상황의식이 반영된 정서이다. 모국어에 당당하게 말할 수 없고 적국의 수도 東京에 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天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운명인 것이다. 따라서 윤동주는 식민지적 현실에서의 시인을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자신이 유학 올 때 가족들 특히 아버지의 기대⁹⁵⁾를 저버리고 그 자신은 이미 시와 조국을 사랑하면서 물욕을 떠난 형이상학적 정신세계를 지향⁹⁶⁾하는 시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연과 넷째 연은 이 시를 쓴 1942년 1학기 立敎大學에서의 일상사다. 고향에서 보내 준 학비봉투를 받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그러한 일상이다. 다섯째 연에서는 그의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향수와 그리움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어서 여섯째 연에서는 자기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홀로 침전한다고 고뇌하고 있다. 이러한 향수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뇌 다음에 일곱째 연에서 인생은 알기 어렵다는데 시가 쉽게 씌어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기 자신의 일상적이고 가벼운 시작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 작품 말고 東京에서 쓰여진 「흰 그림자」(1942. 4. 14)와 「흐르는 거리」(1942. 5. 12)는 센터멘탈하기도 하고 「사랑스런 追憶」(1942. 5. 13)에서는 향수병에 시달리는 젊은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봄」(1942)이라는 작품에서는 화사한 봄의 아름다움과 약동하는 모습만 나타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작의 배경 특히 「봄」의 배경의 근거로 전문학교 시절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이 없다고(「바람이 불어」-1942. 6. 2.) 후회한 연애를 1942년 2학기 동경에서 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는 이도 있다.⁹⁷⁾ 이러한 시작태도에 대한 반성이 바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가 결코 쉽게 씌어진 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이 시

95) 송우혜, 앞의 책, p.251에서 연희전문 진학 때와는 달리 윤동주의 아버지가 적극 찬성했고, pp.270~271에서는 아버지가 立敎大學에서 애초에 말한 東北帝대로 옮기지 않고 同志社大學으로 옮긴 것에 대한 실망감과 노여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96) 윤영춘, 앞의 글, 앞의 책, p.110.

97) 송우혜, 앞의 책, pp.275~277에서 윤동주의 6세 아래 여동생 윤혜원의 증언을 통하여 동경유학생이고 윤동주의 立敎大學 친구의 여동생인 함복 온성 박목사댁 막내 딸과의 관계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1942년 여름 방학 여학생이 귀국하여 약혼해 버림으로 좌절로 끝난다.

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첫째 연과 여덟째 연의 '육첩방 남의 나라'라는 공간계시 속에서 식민지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홉째 연에서 미래지향성을 가지면서 안일한 태도가 청산된다. 등불로 어둠을 조금이라도 몰아내고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가 바로 그것이다. 어둠과 대비된 아침은 낙관적 미래이다. 그런데 그 아침에 대한 비유의 보조관념에 '시대 처럼'이라는 관념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대는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가 지나면 언젠가는 밝은 아침이 올 것이라고 보는 화자의 미래지향적 세계관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래지향적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아홉째 연 '最後의 나'라는 또 다른 '나'이다. 이 '나'는 마지막 연의 또 다른 나와 연결된 '나'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낙관적이지만 最後라는 종말론적 개념을 수식어로 붙인 까닭은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여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하늘 나라를 구원하기 힘 쓴 '序詩'의 '나', 「懺悔錄」에서의 '나'가 바로 낙관적 미래를 예감하고 있는 最後의 '나'인 것이다.

마지막 열째 연은 아홉째 연보다 더욱더 쉽게 씌어진 시가 아니다. 느닷없이 아무 수식어가 없는 '나'가 두 사람이나 등장하여 나와 또 다른 나의 내포적의미를 규명하여야만 이 부분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한 쪽은 바로 앞 연의 '最後의 나'이고 다른 한 쪽은 첫째 연부터 여덟째 연까지 일상적인 '나'인 것은 확실하다. 말하자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인 것이다. 현재의 안일한 나, 그것도 현재적 기독교 세계관과 민족의식을 가진 식민지 청년으로 대단한 각오를 하고 일본으로 왔으나 잠시 방황하면서 안일한 시를 쓴 '나'가 그것을 버리고 다시 유학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눈물과 위안으로 안도감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의 부끄러움은 유학 초기의 방황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 방황을 쉽게 씌어진다는 사실로 구체화하고 있다. 결국 「쉽게 씌어진 詩」는 결코 쉽게만 쓰여진 시가 아니다. 일종의 詩作態度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詩이다. 이러한 점은 「序詩」의 태도와 닮았다. 이러한 반성 이후인 1942년 10월 1일 그는 東京에서 京都로 학교를 옮긴다. 그것도 그가 선배 시인으로서 흠모하였던 鄭芝

溶의 모교이며 같은 과로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 이양하 교수가 고등학교와 대학원 시절 6년 동안 체류했던 까닭에 연회전문 시절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京都로 옮겨 간 것이다. 그리고 이 同志社大學으로의 편입학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방학인 1942년 겨울 방학에는 귀향하지 않았다. 이 때에 그는 하숙집 6조 다다미방에서 밤새워 독서와 시창작에 열을 올렸다.⁹⁸⁾

그렇게 겨울 방학을 보내고 1943년 봄학기가 시작되어 同志社大學에서 두 번째 학기를 마치고 귀향 길에 오르기 직전인 1943년 7월 14일 京都下鴨경찰서에 구금된다. 그는 京都시절에 쓴 많은 시와 일기 등을 경찰서에 압수 당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주로 그것을 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⁹⁹⁾ 그러나 이 원고는 앞에서 살펴본 伊吹郷이라는 일본인이 여러 경로를 통한 조사 끝에 추론한 것처럼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소각되어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京都시절의 작품이 미공개된 채 사라져 결국 그의 부끄러움은 미완성의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완성의 부끄러움은 결코 젊은 나이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닌 당당한 고백으로 그를 민족시인으로 만들었다.

이상의 세 작품에 나타난 운동주의 ‘부끄러움’의 정체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다. 그 자신은 지금까지의 삶을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연애 감정이나 민족의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회개하는 자세로 다가올 삶, 특히 日本 유학에서의 삶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나 일제강점이라는 민족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자신의 미래나 신앙적 신념으로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다짐은 유학 직전에도 「序詩」, 「懺悔錄」으로 나타나고, 유학 초기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다시 반성하는 「쉽게 씌어진 詩」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뒤의 일본 유학생활 특히 동지사대학에서의 삶은 앞에 인용한 동기생의 증언¹⁰⁰⁾처럼 민족의식이 투철한 당당한 삶이었다.

98) 윤영춘, 앞의 글, 앞의 책, pp.110~111에서 윤영춘이 東京에서 귀향도중 京都로 운동주를 방문한 일을 자세히 적고 있다.

99) 윤영춘, 위의 글, 위의 책, pp.112~113

100) 각주 81) 한석희의 글 참조

4. 결 론

윤동주는 간도의 기독교적이고 민족적인 분위기, 가계적인 측면, 그가 교육 받은 각급 미션계 학교, 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숭실중학 수학과 연희전문 수학과 당시의 자유롭고 애국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현세지향적이면서도 민족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하여 그의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형상화되었으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성경을 직접 패로디한 작품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異蹟』(1938. 6. 19)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겠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하늘나라보다 현실에 대한 관심과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八福』(1940. 12)의 경우 슬픔을 여덟 번이나 반복하여 복으로 고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희'라는 복수개념을 통하여 집단 의식화 되어 있는 성숙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슬픔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일제 강점기의 민족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또 太初의 아침』(1941. 5. 31)은 타락된 아담의 입장에서 이브의 고통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역시 현세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전통설화인 토끼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13장까지 결합시킨 『肝』(1941. 11. 29)에서는 현세적 기독교 세계관에다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의식을 반영하여 일제에 대한 분노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기 회생을 통한 속죄양 의식이 보이고 있는 작품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초기시 『초 한 대』(1934. 12. 24)에서는 촛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자기 회생을 지극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시인 『十字架』(1941. 5. 31)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위의 회생을 자기의 회생과 동일시하여 결과적으로는 연희전문 시절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의식이 더하여진 현세적 기독교 세계관의 표출로 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움'과 관련된 작품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부끄러움은 그의 시작의 후기인 1941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序詩』(1941. 11. 20)는 지금까지의 시작 태도와 삶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인데 '별'과 같이 현실과 거리를 둔 자연에 대한 관심보다 인간들의 살아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를 쓰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치열한 삶이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懺悔錄」(1942. 1. 24)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전인격적 참회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삶은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하자고 다짐한다. 일본 유학 직전의 이 작품에서는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현실문제를 하나님의 진리 속에 수렴한다. 즉,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당당한 민족의식 속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일치된 기독교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동경에서 쓴 「쉽게 쓰여진 詩」(1942. 6. 3.)에서는 유학생활에서의 일상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작품 역시 시작태도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래지향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현실과 당당하게 부딪치겠다고 유학 직전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京都 시절의 작품은 일제에 의해 압수 당한 채 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사라지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운동주는 그의 선조들이 다소 민족의식이 결여된 현세적인 기독교 세계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점차 형성되어진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현세적 기독교 세계관을 그의 작품 속에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운동주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의 다른 크리스천 시인이나 작가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 이후의 여러 크리스천 시인들의 작품과 70년대 이후에 형성된 민중신학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크리스천들의 현실 참여적인 시에 대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품들 가운데 문학사에 기록되어 남은 작품들은 운동주의 작품처럼 자연을 객관적 상관물로 하고 성경 말씀을 포레디로 육화시켜 작품 자체의 미적 당위성을 획득한 작품들에 한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권영민 편저, 서거 50주년 기념 윤동주 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서울, 문학사상사).
-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서울, 민음사, 1999).

◆국내논저

- 김용직 편, 『한국현대시 작품론』(서울, 문장사, 1981).
- 김우창 외, 서거 50주년 기념 윤동주 전집② 『윤동주 연구』(서울, 문학사상사, 1995).
- 김정우, 「윤동주의 소년 시절」, 『나라사랑』 23집.
- 김홍규, 「윤동주론」, 『창작과 비평』(1974, 가을호).
- 마광수, 『윤동주 연구』(서울, 정음사, 1984).
-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윤동주, <월간 중앙>, 1976. 4월호.
- 민영진 편, 『성서 백과 대사전』 1권(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 민영진 편, 『성서 백과 대사전』 12권(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 박두신,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서울, 아세아 문화사, 2000).
- 박봉배, 「한국기독교의 토착화」, 『한국의 신학사상』(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83).
- 송전호 외, 『민족주의와 기독교』(서울, 민중사, 1981).
- 송우례, 『윤동주 평전(개정판)』(서울 세계사 1998).
- 신익호, 『문학과 종교의 만남』(서울, 한국문화사, 1996).
- 양왕용, 『現代詩教育論』(서울, 三知院, 2000).
- 양왕용, 「김현승의 숭실전문 시절 시의 화자와 태도」, (태야최동원선생화갑기념 『국문학 논총』, 서울, 삼영사, 1983).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서울, 전망사, 1982).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나라사랑』 23집.
윤일주, 「윤동주의 생애」, 『나라사랑』 23집.
이남호, 「윤동주 시의 의도 연구」(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1986).
이동순 외, 『한국 대표시 평설』(서울, 문학세계사, 1983).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서울 지식산업사, 1991).
장덕순, 「윤동주와 나」, 『나라사랑』 23집.
정병욱, 「잊지 못할 윤동주의 일들」, 『나라사랑』 23집.
한상복, 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함석헌, 「절망 속의 희망」, 『민중과 한국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아가페 큰 글 성경 - 신약전서』(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외국논저

- Brian J. Walsh, J. Richard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서울 IVP, 1987).
M. 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대구, 형설출판사, 1985).
존 미에이, 하문호 역, 『救贖論』(서울, 성광문화사, 1983).
木下長宏 외, 고계영 역, 『일본 지성인들이 사랑하는 윤동주』(서울, 민예당, 1988).
伊吹郷, 윤일주 역, 「時代의 아침을 기다리며(下)」, 『문학사상』(1984. 4).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of Christianity Worldview being indigenized in Korean Modern Poems

Yang, Wang-Yong

Yun Dong-Ju's world of poems is orientated towards realistic and national Christianity worldview being influenced by the Christian and national circumstances in Kando, his family line, his education career. Thus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ristianity worldview imaged in his poems.

Firstly, the aspect of parodying Bible is as following in his poems. In <A miracle> the way of overcoming reality is seeled after, being interested in not transcendental heaven but reality with the view to abandon worldly desire. In <Eight Blessings> the sorrow is understood as the blessing ever eight times repeatly. And the subject who is blessed is expressed as not singular 'he' but plural 'they', which makes us understand Yun's matured nation consciousness. And in <And in the morning of Genesis> he also represents realistic Christianity Worldview, seeing Eve's pain with the viewpoint of depraved Adam. And in <The liver> the refuge against Japanese imperailism is represened by reflecting realistic Christian worldview and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The consciousness of redemption through self-sacrifice is represented in the following poems. In the early poem <A candle> Jesus's self-sacrifice on the Cross is symbolized in the image of candle. But in the late poem <The Cross> he accepts Jesus's sacrifice on the Cross as his own sacrifice, representing realistic Christianity worldview.

Lastly the consciousness of shame is represented in the following powms.

The consciousness of shame is represented in his late poems since 1941. In the <Preface for poems> is represented the shame as the reflecting his writing attitude and the life itself. In <The confession> he reflects his own life seriously. In <The poem written easily> which is written in Tokyo the consciousness of shame of daily life in Tokyo is represent, intending to represent his reflection on his writing of poems. He decides to recover the positive attitude to confront the reality on the basis of future-oriented Christianity worldview.

Yun represents realistic Christianity worldview based upon nation consciowsness that is resulted from various circumstancw factors.